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성 무용교육 기초 연구

-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

김명선\*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교육적 측면에서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력 양극화 및 교육격차, 사회성발달 위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조정호, 2020),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였다(문지영, 양채원, 2022). 지식의 효용성과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UNESCO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의 제를 제안하였다. 우리 삶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적인 형평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의 발전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깨닫고 실천 의지로 이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의무이며 기대이다(황정옥, 2013).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need)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n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되며, 세대 간의 형평성과 세대 내 형평성을 고려하는 발전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이 있는데, 교육은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UNESCO에서는 ESD의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UNESCO, 2012)이라고 정의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교육의 전반적으로 재구조화를 추구하며, 기존 교육에 있어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ESD가 포함하고 있는 특성은 “상황 의존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간학문적 접근, 체계적사고, 평생학습, 실천역량, 다문화적 시각, 협력”이다(UNESCO, 2014, p. 1).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박사과정, skqldi1644@skku.edu

이에 있어 교육부(2022, p. 143)에서도 무용교육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역량과 환경,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은 물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지닌 포용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대두되기 이전에 예술교육 안에서도 무용교육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며(배소심, 김인실, 2000; 박영하 2011; 최상철, 김아롱, 2012; 김나이, 2012; 오레지나, 2012; 황인주, 2013; 안병순, 2013; 조선영, 2017, 남선희, 2022)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은 궁극적으로 창의성 교육이라 할 수 있다(Kim, 2013). 이러한 이념은 기술 위주의 무용보다 무용 속에 담겨있는 삶의 형식을 배우고 ESD를 위한 무용교육의 이해를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용교육에서는 ‘교육’보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정연희, 2011; 황정옥, 2013; 윤수미, 2023; 유화정, 2023).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히 변해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창의성은 무엇인가?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는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이뤄낼 수 있고, 학습 능력은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따라 계속 바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본질만을 파악하는 능력은 ‘문제해결능력’이며, 삶을 살아가는데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현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능력 중 하나이다(UNESCO, 2020). 이는 광범위한 문제들이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확산적 사고 및 수렴적 사고를 반복하여 이용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Runco, 1994). 이미 증명된 정답이나 아이디어들을 기억하여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해결과는 달리, 확산적 사고 및 수렴적 사고의 창의적인 능력이 동시에 발휘해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창의성과 상호교환적(Runco, 1994; 김영채, 2014;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이다.

이처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무용교육 또한 학습자가 ESD를 향유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해 기술 및 지식만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용교육에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에 있어, 먼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는 무엇인지, 무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는 무용교육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있어, 삶 속의 공동체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지속가능한 무용교육을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ESD 창의성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로 문헌고찰 및 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분석 등의 질적 분석 방법을 토대로 기술, 분석, 해석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성의 발전은 브룬트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에 의해 최초로 언급되어 그 후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삶에서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교육의 전망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논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이를 통한 결정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미래교육으로서 ES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SD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형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교육 전반에 부여한다(McKeown, 2002). 따라서, ESD는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지식기반 이상의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모색하고 개인,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등으로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복잡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도전과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살면서 대면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적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사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Tibury & Wortman, 2004) 창의성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에 따르면, ESD의 특성 중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로써 ESD의 목적은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의 구체적인 가치를 실천하게 될 때 달성된다(정연희, 2011). 그렇기에 ESD의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교육을 통한 미래세대의 교육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미래의 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목적으로 인식하며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인식 전환과 교육의 접근 방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에 있어 근본의 변화로 향해가는 교육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 내용 및 기여와 함께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

### 2. 전인적 현대무용 교육

예술교육에 있어 무용교육은 전통 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움직임 욕구의 실현이라는 교육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와 정서순화, 건강의 유지,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공헌하는 분야다. 이는 또한 단순히 신체적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정의적, 인지적 측면을 함양(최의창, 2009; Kim, 2013)하는 전인적 교육으로 자신이 표현의 매개체가 되어 주체적으로 창조적인 예술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며 사고 과정을 거치며 어떤 주제에 대해 표현하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지적, 정서적 발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상상력, 수용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한다(Kim, 2013). 이와 같이 무용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의성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교육부(2022)에서 언급했듯이 무용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포용력 및 창의성을 겸비한 전인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존 무용교육은 사회발전에 필요한 개인적 능력 발달에 편중되어 왔으며, 이는 경제적 수단으로써의 가치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정연희, 2011). 그러나 실상 무용교육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하며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성을 위한 무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용교육을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개인이 내재하고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 수단과 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교육이 될 것이다.

무용교육은 크게 신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창의성 무용교육을 위해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전인적 현대무용 교육 구성요소(Kim, 2013)’의 틀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과 틀이 되며, 창의성 교육을 위한 무용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틀 안에서 교육과정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틀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미학적, 예술성의 관점을 교육과정에 적용하며 창의적인 무용교육을 실천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인적 현대무용 교육 구성요소는 크게 신체와 정신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인 측면은 ‘춤을 잘 추는 것’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정신적인 측면은 ‘춤을 잘 이해하고, 알고 느끼는 것’으로 심법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는 또한 미학과 예술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학성은 기능적, 표면적과 같이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예술성은 심층적으로 입문하여 체화된 것과 같이 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무용교육이 현재 신체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만 연마하는 주입식 교육의 방식은 창의성에 큰 영향을 주기에(Choi & Kim, 2015; Kim, 2022), 창의성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적 측면도 함께 교육되어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의적 무용교육을 위한 현대무용 교육모델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표 1>은 현대무용 교육모델로 내용과 목적에 따라 ‘Kinesis(키네시스)’, ‘Noesis(노에시스)’, ‘Poesis(포에시스)’, ‘Gnosis(노시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전인적 현대무용 교육 구성요소(Kim, 2013)

	신체		정신	
	키네시스		노에시스	
미학적성	내용	테크닉, 스타일, 해부학	내용	역사, 문화, 철학
	과정	포용	과정	이해
	결과	실행	결과	인식
예술성	포에시스		노시스	
	내용	음악, 감정, 생각(주관)	내용	자세 및 태도, 정신
	과정	느낌	과정	연관성 탐색
	결과	표현	결과	동화

### 3. 길포드(J. P Guilford)의 창의성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분야에서든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무용교육의 가

치에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즉,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연관 없이 단면적이거나, 테크닉 습득 위주로 이루어지는 무용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삶을 위한 무용교육을 위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에서 언제든 변화하는 것에 대응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창의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 인간의 삶이란 문제해결 과정의 연속이며 문제해결력은 생존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삶에 매우 중요하다.

급격히 변화가는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다각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무용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협업, 상상력, 그리고 목표 설정과 같은 기본적인 창의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함양하고 적용함으로써 창의적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미래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정의와 논의는 꾸준히 되어왔다 (Dewey, 1910; Rossman, 1931; Guilford, 1950; Guilford, 1956; Torrance, 1979; Weisberg, 1986;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Wallas, 2014). 많은 학자들 중 Guilford(1956)는 다양한 인지 능력을 강조하며, 수치적 사고, 언어적 사고, 사고 속도, 연상적 사고 등의 능력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와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두 가지 유형의 사고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두 유형의 사고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표 2>. 창의적 산출물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확산적 사고 과정으로 인해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생성 후, 수렴적 사고 과정을 통해 발견한 아이디어들 중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두 유형의 사고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한다(Guilford, 1956)고 한다.

### 가. 확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는 광범위하게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에 대해 독창적인 대답을 많이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길포드(1950)가 처음으로 이를 제시했다. 길포드는 확산적 사고를 문제에 대한 유창성, 융통성, 민감성, 유추성, 독창성 등의 요소로 구분했다. 일반적으로 확산적 사고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안에서 쉽게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가 확산적 사고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생각되지만, 유전이나 IQ 보다는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창의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혁신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확산적 사고는 정보를 확장시켜 탐색하고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대답을 만드는 능력으로, 여러 가능성을 인정하고 탐색하는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이 가진 특성과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어졌다 (Barron & Harrington, 1981; Rossman & Gollob, 1975).

이러한 연고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확산적 사고를 나타내는 검사 점수는 창의성 점수와 대부분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지만, 본 결과는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을 표출하는 것에 필요한 지적 사고능력 중의 하

나임을 감안하면 적합한 수준의 상관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적 사고의 여러 능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나. 수렴적 사고

수렴적 사고는 시험 상황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흔하게 요구되는 사고방식이다. 대체로 시험에서는 여러 가능성이나 보기 중 정답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한가지의 답을 요구하지만, 이처럼 미리 정해져있는 정답을 알아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렴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수렴적 사고는 정교성, 논리성, 비판성, 분석성, 종합성 등의 요소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가능성들을 조직화하고 분석하기, 유망해 보이는 가능성들을 다듬고 개발하기, 대안들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등급 매기거나 우선순위 정하기, 어떤 대안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등이 있다(Nickerson, Perkins & Smith, 1985). 수렴적 사고는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능력으로 계산, 이해, 추리 등의 능력과 상관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수렴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데 가치를 높게 두고 있다.

수렴적 사고는 적합하고 옳은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기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렴적 사고도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Nickerson, Perkins & Smith(1985)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각자의 사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함께 작용된다고 보았다. 창의적 산출물을 위해서는, 먼저 확산적 사고 과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 수렴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 중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확산적 사고는 산출물의 독창성에, 수렴적 사고는 산출물의 적절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사고(Guilford, 1956)

구분	의미	사고력
확산적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사고과정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해답을 찾아 개인의 사고가 여러 갈래로 퍼져 섭렵하는 사고방식	유창성
		융통성
		민감성
		유추성
		독창성
수렴적 사고	기존의 사고를 발전시키고 연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사고과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답의 가능성을 좁혀 알맞은 해결책을 수렴하기 위해 논리와 지식을 적용하는 사고방식	정교성
		논리성
		비판성
		분석성
		종합성

### III. 연구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현 시대 인류의 발전적인 전략을 담고있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같이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와 원리는 교육을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UNESCO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시대(Decade of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DESD)’를 선포하였으며, 각 국가에서 실천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무용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반복적인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예술에 담긴 원리와 구성요소를 가르치던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무용교육의 가치를 강화해 왔다(Efland, 2004). 또한 ESD를 위한 무용교육의 실천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같은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을 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무용교육에서 신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수렴적 사고 및 확산적 사고가 어떻게 창의성을 기르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있어 Kim(2013)의 현대무용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길포드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무용교육에 있어 어떤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3> 창의성 함양을 위한 ESD 무용교육

	수렴적 사고		확산적 사고	
	키네시스		포에시스	
신체	내용	테크닉, 스타일, 해부학	내용	음악, 감정, 생각(주관)
	과정 및 결과	정교성, 분석성, 논리성	과정 및 결과	독창성, 유추성
정신	노에시스		노시스	
	내용	역사, 문화, 철학	내용	자세 및 태도, 정신
	과정 및 결과	논리성, 분석성	과정 및 결과	융통성, 민감성

#### 1. 키네시스: 수렴적 사고

키네시스 측면에서는 동작의 원리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는 테크닉과 포지션 등의 기술과 신체 인식, 과학적, 해부학적 신체관련 지식을 측면에서 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관련(포지션, 테크닉, 기교), 신체관련(신체 인식, 과학적, 해부학적 지식) 측면으로 구성된다(최의창, 2009; Kim, 2013). 키네시스 측면의 교육 과정에서의 내용은 테크닉, 스타일, 해부학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해결책을 수렴하기 위해 가능성을 좁히는 과정인 수렴적 사고와 동일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교성, 분석성, 논리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테크닉은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과 동작의 원리를 이해하여 정교하게 자신의 신체에 적용해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적 자각과 자기표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몸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몸을 세부적으로 잘 이해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기에 테크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체를 세밀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몸을 인지하는 것은 곧 나의 습관이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 잘못된 습관을 바꾸면서 기존의 것을 깨어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통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되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테크닉적 함양은 해부학적 지식과 신체 인식, 원리 등을 세밀하게 알고 몸에 적용해야하는 능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테크닉을 배우면서 함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기에 수렴적 사고에서 생각을 치밀하게 다듬고 정리하는 능력인 ‘정교성’이 필요하고 학습하면서 이를 함양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춤의 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용이란 결국 신체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여러 방식으로 미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용의 장르마다 미적인 움직임 형태가 있고, 미적인 움직임을 운용하게 하는 규칙이 있으며, 이를 원리라고 한다(최의창, 2009). 예를 들어, 한국무용이나 발레 혹은 컨템포러리댄스 안에서의 테크닉이 많이 존재하지만 신체의 인식과 더불어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각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에 존재하는 많은 춤 스타일을 학습하면서 특정 춤의 원리와 기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신체에 적용하며 어떠한 춤 스타일이든 신체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화롭게 춤을 배우는 경험으로 학생들은 수렴적 사고중 분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부학적인 접근은 논리성을 필요로 하며 교육 과정에서도 이를 함양할 수 있다. 해부학은 몸을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 자신의 몸에 적용하여 주관적인 몸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몸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수행하기까지 해부학적 탐구가 없어서는 안된다. 해부학적 지식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능력으로, 논리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신체를 객관화 시켜 바라볼 수 있으며 부상과 동작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키네시스 측면은 신체적인 차원으로 움직임과 연관된 테크닉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근감각적 지각력, 해부학적 지식을 내재하여 움직임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순간 필요한 것을 채택하여 몸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렴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 2. 노에시스: 수렴적 사고

노에시스 측면에서는 무용을 둘러싼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찰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 문화, 철학,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측면으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문화관련 지식이 있다. 즉 무용과 관련된 역사, 문화, 철학 양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무용 소양(안목)을 넓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최의창, 2009; Kim, 2013). 단 하나의 개체 혹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맥락에 대해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조용환, 1999). 이러한 측면은 교육 내용에서 창의성과 함께 바라보았을 때, 논리성과 분석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노에시스 측면에서 역사와 사회/문화적 연결을 통해 삶을 배울 수 있다. 예술은 역사와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신체를 통해 문화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문화적 가치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무용은 신체를 통한 움직임만을 잘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무언가를 잘 표현하고 이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에 대한 분석 및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동작을 배우고 직접 해보는 것에서 발견할 수 없던 심도 깊은 부분을 탐색할 수 있으며,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 무용은 결국 역사와 문화적인 것,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작품을 해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무용에서는 아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무용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그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 기반으로 주관적인 생각을 움직임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개념에 대해 논리성과 분석성을 통해 본인의 해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동시에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능력인 논리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깊게 탐구하고, 복잡한 요인을 여러 방향의 작은 부분으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능력인 분석성을 통해 여러 문화에 대한 식별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하며 수렴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3. 포에시스: 확산적 사고

포에시스 측면은 무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탐구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예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음악성과 동작 관련성의 해석력, 표현력과 같은 지식이 있다. 이것은 무용 동작과 음악에 대해 개인의 탐구와 해석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며 무용 기능을 숙련되게 잘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무용동작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탐구를 바탕으로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측면이다 (최의창, 2009; Kim, 2013).

무용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감정과 자신의 해석을 통한 사상을 미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 형태이며, 이를 위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내용을 해석하여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해석은 자신의 주관에 생기기도 하며, 그 주관은 결국 표현성이 되고 이는 감정과 음악성에도 연관이 있다. 즉, 포에시스 측면에서는 독창성을 기반한 표현력과 유추성을 기반한 해석력 및 이해력을 함양할 수 있다.

신체를 기술적으로 잘 수행해도 자신의 해석과 그에 따른 감정과 음악과 함께 하는 움직임이 배제되어 있다면 이를 예술로써의 무용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표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석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 한다. 이에 있어, 독창성은 엉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독특한 생각하는 능력으로 상상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어떠한 음악을 듣거나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혹은 보편화된 이야기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축하여 감정과 해석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아이디어를 다른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능력인 유추성은 움직임과 그 안에 담겨진 것

들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용은 종종 음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유추성은 주어진 음악에서 춤의 움직임을 추론하고, 음악의 감정과 특징을 춤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무용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만큼 유추성을 통해 기존의 무용 기술이나 움직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해석을 통한 표현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자유롭게 예술적인 표현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기술을 예술적인 측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가 포에시스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무용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면을 예술로써 승화하기 위해서는 내제된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노시스(Gnosis): 확산적 사고

노시스 측면은 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체험의 경지를 포함하는 측면이다. 예의, 절제, 인내, 배려, 성실, 극복하는 것 등의 무용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아실현, 절대미 등의 이상과 관련된 지식기반의 측면이다. 이는 무용을 알맞은 방식으로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이상적 경지를 포함하여, 무용의 정신이 체화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이 무용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개인적, 주관적인 의미에서 무용의 이상 실현과 관련된 공적, 객관적인 의미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된 측면이다(최의창, 2009; Kim, 2013). 노시스 측면은 교육 내용에서 창의성과 함께 바라보았을 때, 융통성과 민감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노시스 측면은 쉽게 말해 무용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며 키네시스, 노에시스, 포에시스 측면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무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돌보고, 다루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내면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해석하고 표현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모두 인지하고 숙지해야 한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예술로써 진정한 무용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는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함도 있다. 예를 들어, 단체 수업 중 함께 수강하는 학생들을 인지하지 않으면 움직임 도중에 충돌하여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거나, 무대 위에서 함께 춤을 추기에 맞춰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함양할 수 있다. 이는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최적화 하며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협력하는 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서로가 함께 도우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의미와 즐거움을 배울 수 있다. 이처럼 함께 하는 수업과 작품의 형식이 대부분인 무용에서는 자신 만큼 남을 돌보고, 함께하는 공간의 상황까지 인지하는 성품 등과 같이 여러 측면을 생각해야 하기에 융통성 또한 무용교육에서 필수적이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 의식을 지닌 만큼 타인이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예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민감성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 예의, 절제, 인내, 배려, 성실, 극복과 같은 덕목을 쌓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관점이나 시각을 바꿔서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인 융통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용의 삶을 살아가면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상황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같이 이루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덕목이다.

## IV. 결론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원리는 사회의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은 무용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무용교육이 ESD를 위한 예술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과정의 자체가 실천과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ESD의 원리와 같은 핵심적인 가치가 실천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즉, 무용교육의 과정은 “왜”의 문제와 같은 목표와 가치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급격히 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함양해야 하며 현대 철학과 문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교육과정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정연희, 2011). 그렇기에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현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실천은 우리 모두가 ESD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무용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ESD를 위한 실천은 무용교육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공유하는 노력이며,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치판단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실천적 행동의 형식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무용교육은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필요한 창의성 개발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리와 목표를 실천하는 일원으로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기초 연구이기에 향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두어 창의성을 포함한 신체적, 감성적, 미적,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조화롭게 개발하는 무용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과 전문, 비전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교육 내용, 목적, 방법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영채(2004). 창의성과 문제 해결: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Dewey, J.(1910). *How we think*. D. C. Heath.
- Efland, A. D.(2004). *Emerging visions of art education*. In Handbook of research and policy in art education (pp. 691-700). Routledge.
- Nickerson, R. S., Perkins, D. N. & Smith, E. E.(2014). *The teaching of thinking*. Routledge.
- Rossman, J.(1931). *The psychology of the inventor*. Inventors Publishing Company.
- Torrance, E. P. (1979). *The search for satori and creativity*.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 Treffinger, D. J., Isaksen, S. G. & Dorval, K. B. (2000). *Creative problem solving: An introduction*(3rd ed.). Prufrock Press.
- Wallas, G.(2014). *The art of thought*. Solis Press.
- Weisberg, R.(1986). *Creativity: Genius and other myths*. W. H. Freeman & Co.
- 김나이(2012). Understanding Creative Pedagogy in Modern Dance Education - Teaching Creativity through Teaching Creatively. *무용역사기록학*, 26, 1-21.
- 남선희(2022). 플립 러닝을 적용한 무용 수업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87(3), 15-26.
- 문지영, 양채원(2022).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아시아교육연구*, 23(3), 557-585.
- 박영하(2011). 무용창의성 측정을 위한 TCAM (Thinking Creatively in Action and Movement) 검사의 적용가능성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2, 25-47.
- 배소심, 김인실(2000). 초등학교 고학년 창작무용학습이 창의성 및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4(1), 105-114.
- 오레지나(2012). 무용 창의성 검사 개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1), 155-170.
- 안병순(2013). 신체움직임의 창의성 이론과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2), 672-679.
- 유화정(20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무용예술의 현황-환경 친화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 5-26.
- 윤수미(2023).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한 무용축제 사례 연구. *한국무용연구*, 41(2), 113-143.
- 정연희(2011).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미술과 교육*, 12(1), 51-71.
- 조선영(2017). 무용창의성 향상을 위한 키렌 이건(Kieran Egan)의 상상력 이론 적용방안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3(1), 105-121.
- 조정호(2020). 언택트 문화가 사회성발달과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코로나19 팬데믹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14(3), 139-155.
- 최상철, 김아롱(2012). 창의적 사고 기반 즉흥무용 수업 모형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1), 99-128.
- 황인주(2013). 창의적 무용교육의 미학적 분석. *무용역사기록학*, 31, 283-297. 황정옥(2013). 커뮤니티댄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의미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55-71.

- Barron, F. & Harrington, D. M.(1981).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 Choi, E., & Kim, N.(2015). Whole ballet education: exploring direct and indirect teaching method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6(2), 142-160.
- Kim, N.(2013). Reevaluating the Aims of Modern Dance Training in Korea: Toward a Whole Dancer.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3(2). 46-55.
- Kim, N.(2022). Action Research: Guided Discovery Teaching Style for Virtual Contemporary Dance Technique Training.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85(1), 67-79.
- Guilford, J. P.(1956). The structure of intellect. *Psychological Bulletin*, 53(4), 267.
- Guilford, J. P.(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9), 444-454.
- Rossmann, B. B. & Gollob, H. F.(1975). Comparison of social judgments of creativity and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2), 271.
- Runco, M. A., & Nemiro, J.(1994). Problem finding, creativity, and giftedness. *Roeper Review*, 16(4), 235-241.
- 교육부(2022.12.22). “예술교육 선택 과목 교육과정 2022-33호 [별책 22]”.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8>, 2023. 05. 02.>.
- 최의창(2009). 무용정신은 가르칠 수 있는가?-교육내용으로서 무용 정신의 구성요소와 교수방법 탐색. 한국연구재단. <[https://www.krm.or.kr/krmi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21440](https://www.krm.or.kr/krmi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21440), 2023. 06. 02.>.
- McKeowon, R.(2002).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olkit.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52453>, 2023. 06. 23.>.
- Tilbury, D. & Wortman, D.(2004). Engaging people in sustainability. *IUCN*. <[https://aries.mq.edu.au/publications/other/Understanding\\_EfS/EngagingPeople.pdf](https://aries.mq.edu.au/publications/other/Understanding_EfS/EngagingPeople.pdf), 2023. 07. 11.>.
- UNESCO(2010).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UNESCO’s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90692>, 2023. 06. 30.>.
- UNESCO(2012). 내일의 교육을 그리다. *UNESCO*.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6606\\_kor?posInSet=1&queryId=2ee2abe2-86ca-4d87-82a1-ea0acd24238c](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16606_kor?posInSet=1&queryId=2ee2abe2-86ca-4d87-82a1-ea0acd24238c), 2023. 07. 11.>.
- UNESCO(2014). Aichi-Nagoya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859Aichi-Nagoya\\_Declaration\\_EN.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859Aichi-Nagoya_Declaration_EN.pdf), 2023. 07. 17.>.

논문투고일 2023. 11. 28.

심사일 2023. 12. 06.

심사완료일 2023. 12. 15.

## **A Preliminary Study on Creative Dan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Focusing on Cultivating Problem Solving through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

**Kim, Myeong Seon**

Doctoral Candidated,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educational possibilities of fostering creativity through dance education based on the values of ESD. The study primarily adopts a literature review approach based on Kim's (2013) components of holistic contemporary dance education and Guilford's (1956) perspective on 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it was shown that elements of convergent and divergent thinking can be cultivated in each component of 'Kinesis', 'Noesis', 'Poesis', and 'Gnosis' through dance education (Kim, 2013).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dance education to foster cultivate creativity for sustainability and to propos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systematization.

**Keywords:**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발전교육), dance education(무용교육), creativity(창의성), creative problem solving(창의적 문제해결력)